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탄이 보내는 편지



오늘도 어두운 거리를 해매다가 지친 몸으로 당신께 편지를 씁니다. 어느 때처럼 당신의 사진을 꺼내놓고, 얼굴을 보면서 함께 했던 많은 시간을 떠올려봅니다. 생각해보면 참 행복했습니다. 나의 마음이 곧 당신의 마음이고, 당신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랬던 당신이 왜 날 버리셨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수십 년이나 된 교분을 하루 아침에 끊어버리다니요.. "이제 다시는 볼 생각도 하지 말라"는 그 한마디에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이 뜨거울수록 이별이 고통스럽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그렇게 매몰차게 떠나신 이유가 예수라는 분 때문인 걸 알았습니다. 몰아몰아 당신을 찾아가를 때, 그분 등뒤에 몸을 숨긴 채, "당장 물러가라"고 소리치실 땐 차라리 죽는게 낫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그렇게 끝나는 듯했습니다.

가끔 당신이 예수님과 재미있게 지낸다는 소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저리도록 시려왔습니다. 질투와 미움이 불길같이 타오르더군요. 그런 날이면 오늘처럼 당신의 사진을 꺼내놓고 눈물짓곤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나 봅니다.

그렇게 애뒤틀던 예수님과의 관계가 요즘 뼈걱거린다면서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는 시간도 없어졌다면서요? 예수님이 보낸 편지를 늘 읽으며 가슴 벅차하는 일도 없어지고, 입술에 예수 소리가 점점 사라져간다면서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과 상의해서 하던 당신이, 이제는 예수님이 불세라 몰래 벌이는 일들이 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이 내겐 복음이었습니다. 당신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다시는 당신을 포기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않겠어요. 누가 뭐래도 기다리겠어요. 예수님과 불화가 생기고 그 불화가 더욱 깊어지는 날, 당신은 날 기억해낼 거예요. 당신이 돌아와 준다면 다시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약속해요.

당신을 꿈에도 잊지 못하는 사탄이...



◀추억생각하기▶ "이쁜이 비누"를 아시나요?  
비누하나라도 귀하던 시절, 양젓물로 만들어 사용하던 것에 비해 훨씬 냄새가 좋았던 이쁜이 비누. 비닐봉투에 3개 정도가 들어있던 걸로 기억됩니다. 빨리 닳아 없어지지 않도록 딱딱하게 만들어져 서민들이 좋아했죠. 다이알 비누는 여기에 비하면 고급이었고 후에 나온 밍크비누는 신비함마저 들었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2003년 교회생활: "건강한가장, 건강한교회" <b>갈보리 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의명성 - 명예
제 5권 26 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3년 6월 29일
☎520-9464,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딱 한 사람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려해도  
딱 한 사람,  
나를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질 것 같아  
몸을 추스리고 일어나 내일을 향해 바로 섭니다.



속은 일이 하도 많아  
이제는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지만  
딱 한 사람,

나를 칠씩같이 믿어 주는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  
그 동안 쌓인 의심을 걷어 내고, 다시 모두 믿기로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강박하여 모든 사람을 미워하려 해도  
딱 한 사람,  
그 사람의 사랑이 밀물처럼 가슴으로 밀려와  
그 동안 쌓인 미움들을 씻어 내고  
다시 내 앞의 모든 이를 사랑하기로 합니다.

아프고 슬픈 일이 너무 많아 눈물만 흘리면서 살아갈 것 같지만  
딱 한 사람,  
나를 향해 웃고 있는 그 사람의 해맑은 웃음이 떠올라  
흐르는 눈물을 닦고 혼자 조용히 웃어 봅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때문에 이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딱 한 사람,  
나를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다시 용기를 내어 새 일을 시작합니다.

세상을 향한 불평의 소리들이 높아 나도 같이 불평하면서 살고 싶지만  
딱 한 사람,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평화가 그리워  
모든 불평을 잠재우고  
다시 감사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엄마가 딸에게  
눈을 흘기거나  
입을 삐죽거리지 마라  
바로 보고 바로 말하는 자가  
바른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회에 갈 때  
귀한 분 만날 때처럼  
단정한 복장을 해라  
하나님께 갈 때 그게 예의다

#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니라	인도자
*찬송 Hymn	34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6 (시편 15편)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주일학교
찬송 Hymn	544장	다 같이
기도 Prayer		이재영 안수집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요한복음 14:1-6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예수님은 누구신가( 같이신 예수님'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483장	다 같이
헌금 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1절:최원영.이종란 성도 가정 2절:다같이)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서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 ◆6.7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Tea Time
29	이재영	변민강	최원영.이종란	민광호.박병민
6	장현중	서동완	김홍구.윤경례	박 실.박일영
13	정덕수	송영철	탄생축하	박재양.박태원
20	정희자	신영화	화장실청소담당	송영철.서동완
27	지찬영	양경배	민병구.조미애	양경배.원성호

'2003년 교회표어  
"건강한 가정, 건강한교회"(마 18:4)  
부모의 기도받는 자녀  
남의 형편 헤아리는 신앙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7시

\*7월은 우리 교회 4번째 교회 생일이 있는 달입니다. 어떤 때는 4주년  
에? 어떤 땐 벌써 4주년? 이 땅에서 보내는 같은 연수를 가지고도 이렇  
게 다르게 느껴지니 하늘의 천년과 이 땅의 천년이 어찌 같을 수 있을까요..

### 1.교우소식

\*<이사> 유성희 집사 ☎ 369-5503 ☒ 4/3 Bridge Water Rd. Parnell

\*한국방문 중. 김경천 성도.

\*호주행. 장영준(장현중 장로 아들). 약 3개월 코스 공부위해 호주.

### 2.오늘은 "이삭줍기" 헌금드리는 주일.

\*가정에서 모은 Silver Coin이 어려운 아동들에게 한달의 양식이 됩니다

### 3.상반기 확대당회. 오늘 저녁 6시. 김교섭 장로 자택

### 4.Tracking Club 정기 Tracking(안내문 참조)

<일시> 5일(금주 토요일) <모임장소> 교회 10:30am./Cascade Park 11:15 am

<코스> Cascade Kauri Park- Waitakere Dam

### 5.중고등부 수련회

<일시> 7월 7일-9일(2박3일) <장소> Houghtons Bush Camp(Muriwai Beach)

### 6.오늘의 "5분 콘서트": 초등부에서 노래와 율동으로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 드립니다

### 7.7월교회력

6일		Tracking 클럽(5) 영화클럽(6) 구역예배(11)
13일	교회생일주일	전교우 운동회(13) 믿음의어머니기도회(14)
27일		남선교회월례회(27).당회(29)

### ◀착한 시인들▶ 웃은 죄

-김동환-

지름길 묻길래 대답했지요.  
물 한 모금 달라기에 샘물 떠주고,  
그러고는 인사하기 웃고 받았지요.

평양성(平壤城)에 해 안뜬대두  
난 모르오,  
웃은 죄 밖에.

나그네에게 물 한 모금 떠주  
고 딱 한번 웃어 보인 우물  
가의 일로 인해 벌써 마을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는가  
봅니다.  
몇일 전 비오는 날의 쇼팽  
물, 비 멎기 기다리는 한국인  
듯한 여성이 동족감에서 가  
볍게 웃어주더군요.  
아... 그건 키위들의 얇은 입  
술이 주는 미소에서는 맛을  
수 없는 고향 길 순이의 미  
소였습니다.